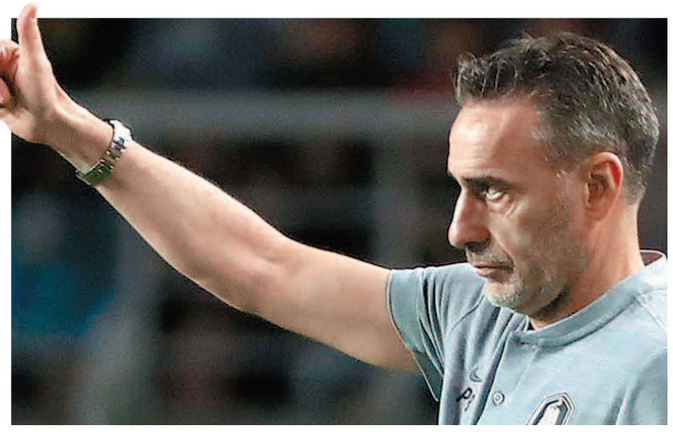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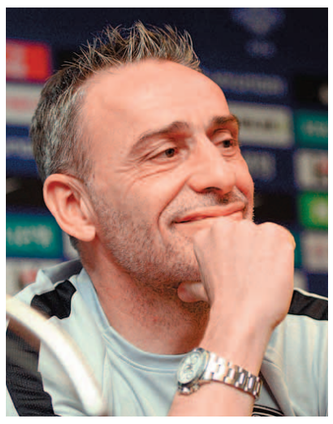
스포츠동아
2019년 8월 29일 목요일
sportsdonga.com 10판
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
ABC 공인 유료·발행부수 2년 연속 1위

‘벤투 영입’ 김판곤 국대전력강화위원장이 보는 ‘벤투 체제 1년’

“경기력·기술력 향상 큰 공…골가뭄 아쉬워”




● 벤투호 A매치 결과(10승5무1패)

2018년		
9월 7일	코스타리카	2-0 승
9월11일	칠레	0-0 무
10월12일	우루과이	2-1 승
10월16일	파나마	2-2 무
11월17일	호주	1-1 무
11월20일	우즈베키스탄	4-0 승
12월31일	사우디아라비아	0-0 무
2019년		
★ 1월 7일	필리핀	1-0 승
★ 1월11일	키르기스스탄	1-0 승
★ 1월16일	중국	2-0 승
★ 1월22일	바레인	2-1 승
★ 1월25일	카타르	0-1 패
3월22일	볼리비아	1-0 승
3월26일	콜롬비아	2-1 승
6월 7일	호주	1-0 승
6월11일	이란	1-1 무

※ ★표는 아시안컵·나머지는 평가전

2018러시아월드컵에서 조기탈락한 한국축구는 소방수가 필요했다. 진통 끝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됐다. ‘벤투호’ 출범 후 1년. 벤투 감독은 때론 활짝 웃으며, 때론 얼굴을 붉히며 한국 축구와 함께 했다. 큰 무리 없이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다양한 표정 속에 1년간의 동행을 마친 벤투 감독은 이제 한국 축구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건 채 2020카타르월드컵을 향한 ‘진짜 전쟁’에 나선다. 뉴시스·스포츠동아DB

빌드업 명확한 ‘능동적인 축구’ 이끌어
예비선수 70명 모두 체크하는 ‘꼼꼼맨’
1월 중국전·3월 콜롬비아전 최고의 경기
월드컵 전망? 만만찮은 平2차예선 중요

1년 전 이맘 때 한국축구는 새로운 리더를 갈구했다. 2018러시아월드컵이 실패로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책임질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했다. 외국인 지도자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상당한 진통 속에 내린 결론은 파울루 벤투 감독(50·포르투갈)이었다. 8월 17일 공식 발표와 1주일 뒤 기자회견, 그리고 9월 7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통해 벤투호는 본격 출항했다.

1년이 흘렀다. 벤투호는 그동안 16번의 A매치(국가대표팀간 경기)에서 10승5무1패를 기록했다.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. 대표팀 스타일이 만들어지면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성과다. 벤투 영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(50)도 벤투 체제 1년에 대해 “대체로 만족한다”고 했다.


김판곤 위원장

-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.

“대표팀 운영은 만족스럽다. 선수를 선발하고, 상대를 분석하고, 경기를 대비하는 과정 등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. (점수를 준다면?) 점수를 말하긴 좀 그렇다. 지난 1년은 우리의 색깔을 찾는 과정이었다. 감독도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했다. 다행인 것은 경기력이 안정됐고, 수행능력이 꾸준해졌다는 점이다.”

-아쉬운 대목이 있다면.

“공식대회 결과는 아쉽다. 1월 아시안컵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(한국은 8강에서 카타르에 0-1로 졌다). 득점이 많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다.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, 골문 안으로 넣지 못했다. 감독도 비효율적인 경기였다고 아쉬워했다. 또 반성해야할 건 상대 지역에서 더 많이 공을 갖고 놀아야하는데, 중간 지역에서 맴돌았다는 점이다.”

-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.

“아시안컵 중국전(2-0 승)과 3월 콜롬비아 평가전(2-1 승)이다. 중국전은 우리 대표팀의 교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첫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공격과 수비 모두 좋았다. 중국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경기를 잘 했다. 콜롬비아전은 전술적인 변화를 많이 주면서도 경기를 주도한 게 인상적이었다.”

-벤투호의 특징은.

“능동적인 공격축구, 창의적인 축구,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라고 할 수 있다. 공격도 주도하지만 수비에서도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경기를 한다. 또 우리는 빌드업이 명확하다. 이는 선수들에게 잘 입력되어 있다.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벤투 감독은 계속 요구했는데, 이를 통해 많이 발전했다.”

-벤투 감독의 지도력은.

“리더십이 뛰어나다.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.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. 선수들이 벤투 감독의 방향성에 만족하면서 잘 따른다. 권위가 있지만 결코 강압적이지 않다. 코칭스태프 관리도 뛰어나다. (성격은?) 그는 정확하다.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바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정도로 깔끔하다. 또 진지하다.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. 감독은 무게가 있어야하고 권위가 있어야한다.”

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
최현길 기자 choihg2@donga.com

‘날라리’도 음원 1위 돌풍…5연속히트 ‘선미 전성시대’ ▶ 2면
“5번째 홈런왕 보인다”…박병호 ‘승짱 대기록’에 도전장 ▶ 3면

